한가위 명절 스포츠와 함께

KIA 21~22일 kt와 홈 2연전
광주FC, 제주·전북과 홈 맞대결
손흥민·황희찬·LPGA 군단 출격
씨름·양궁세계선수권대회도 주목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연휴가 사실상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6일간 다채로운 스포츠 경기가 펼쳐진다. 국내에서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순위싸움이 이어지고 해외에서도 류현진과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LPGA 군단들이 경기에 나선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KIA 타이거즈와 광주FC는 추석 연휴기간 홈경기를 갖는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중 입장이 가능해 TV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관전도 가능하다.

KIA는 17일 삼성, 18~19일 LG와의 원정경기를 마치고 돌아와 21~22일 오후 2시 광주에서 kt 위즈와 홈 경기를 갖는다.

KIA는 연휴기간 열리는 kt전에 다양한 장내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1일 경기 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변에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민속놀이 한마당을 연다.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예선(경기전)과 본선(클리닝타임)을 통해 우승을 차지한 팬에게는 선물이 주어진다.

인기 국악인과 트로트 가수의 공연도 펼쳐진다. 21일에는 구례 출신의 국악인 김산옥씨가 애국가를 부르고, 경기 전 특별 공연을 펼친다.

22일에는 트로트 가수 윤수현씨가 다시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시구자로 나서고, 경기 전 특별 공연으로 팬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7일 승리기원 시구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윤수현씨는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21~22일 일반석 입장권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광주FC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제주 유나이티드와, 21일 오후 4시 30분 전북 현대와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홈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수원삼성 원정 경기에서 허율과 김주공의 득점으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창단 첫 K리그1 4연승이라는 새 역사를 이루진 못했지만 선제실점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투혼과 패기를 보여주면서 광주의 기세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광주는 현재 승점 29점으로 9위에 랭크돼 있다. 하지만 최하위 FC서울과의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하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지속되고 있기에 방심할 겨를이 없다.

긍정적인 부분은 후반기 들어 광주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순연 경기였던 14라운드 서울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강원, 인천, 성남에게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후반기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0라운드 상대 제주는 현재 8위에 올라있다. 광주 입장에서는 바로 윗집인 셈이다. 광주는 제주전에서 승리하면 승점 30점 고지를 넘어 제주를 2점 차로 바짝 추격할 수 있다. 잔류 경쟁에서 탄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대다.

광주는 올 시즌 제주와의 경기에서 2무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지만 한방은 없었다. 승점 1점보다는 3점이 필요한 광주다. 광주만의 강한 압박과 폭발적인 공격력이 과제다.

추석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씨름대회도 열린다. 17~22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다.

첫날인 17일에는 태백급(80㎏ 이하) 예선이 치러지고, 18일 태백장사 결정전을 시작으로 금강장사(90㎏ 이하) 결정전, 한라장사(105㎏ 이하) 결정전, 백두장사(140㎏ 이하) 결정전이 차례로 열린다.

22일에는 여자부 개인전(매화급·국화급·무궁화급)과 단체전 결승이 벌어진다.

태백급에서는 추석 대회 5연패 도전하는 '최강자' 윤필재(의성군청)에 맞서 노범수(울주군청)와 허선행(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가위 장사 꽃가마에 도전한다.

금강급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임태혁(수원시청)과 라이벌 이승호(수원시청),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의 접전이 예상된다.

18일 오후 2시 경북 상주체육관에서는 프로농구 2021 MG 새마을금고 KBL 컵대회 결승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10월 9일 2021-2022시즌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선수단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삼성을 제외한 프로 9개 구단과 상무를 합쳐 10개 팀이 지난 11일부터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박민지(23)와 장하나(29)는 1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인비테이셔널(총상금 8억원)에서 하반기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부문 선두 경쟁을 벌인다.

국외에서 뛰는 스타들도 한가위에 쉼 없이 그라운드와 필드를 누빈다.

오른쪽 종아리 근육통으로 잠시 전열에서 빠진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은 20일 0시 30분 첼시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경기 때 그라운드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왓퍼드를 상대로 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린 '황소' 황희찬(25·울버햄프턴)은 18일 오후 8시 30분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골 사냥에 나선다.

최근 널뛰기 투구로 고전 중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4)은 18일 오전 8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한 시즌 개인 최다 타이인 14승에 재도전한다.

5일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 류현진은 연휴 직후인 23일에 탬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의 디 오리건 골프 클럽(파72·6,478야드)에서 17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은 한국 선수들이 모처럼 낭보를 전해올지 관심이 쏠리는 대회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한 양궁 대표팀은 19~26일 미국 양크턴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또 한 번 무더기 금맥 캐기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갈림길에 선 양현종
두 번째 '방출 대기'

일주일 내 마이너리그 계약 여부 결정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33)이 소속 팀 텍사스 레인저스로부터 방출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처됐다.

텍사스 구단은 16일(한국시간) "부상에서 회복한 외야수 윌리 칼훈을 40인 로스터에 포함하기 위해 양현종을 지명 할당했다"고 발표했다.

계획된 수순이다. 양현종은 지난달 메이저리그(MLB)로 복귀해 부활 기회를 잡았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4경기에서 불펜으로 등판해 6⅓이닝 4실점(4자책점)을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였던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선 2⅓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4피안타 2실점으로 부진했다. 결국 양현종은 15일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라운드록 익스프레스로 돌아갔고, 하루 만에 지명 할당됐다.

양현종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양현종은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에 트레이드되거나, 방출, 혹은 마이너리그로 완전히 내려가야 한다.

양현종은 지난 6월에도 강등된 뒤 방출대기 신분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양현종은 KBO리그 복귀를 선택하지 않고 라운드록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 도전의 길을 선택했다.

양현종은 다시 갈림길에 섰다.

현실적으로 MLB 다른 팀의 입단 제의를 받을 가능성은 작다. 마이너리그 잔류와 방출 후 KBO리그 복귀 중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FC 뉴트로 유니폼 출시…내달 3일 착용

광주FC가 창단 11주년을 맞아 뉴트로 유니폼을 선보인다.

광주는 16일 창단 첫해였던 2011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뉴트로 유니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광주의 유니폼은 뉴트로(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디자인으로, 팀의 주색인 노란색과 창단 첫해 유니폼의 승리(Victory)를 뜻하는 V패턴을 재해석했다.

유니폼 전면부에는 광주를 영문으로 새겨 넣고, 우측 소매에는 광주시의 시정구호를 레드컬러로 삽입했다. 좌측 하단에는 공식 창단일(2010/12/16)과 레트로데이(2021/10/03)를 그래픽화한 아이덴티티를 추가했다.

뉴트로 유니폼은 17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되며, 선수단은 10월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뉴트로 유니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의 초대 감독 출신인 최만희 대표이사는 "많은 광주시민들이 창단 첫 경기 대구FC와의 3-2 펠레스코어 승리를 기억하실 거라 생각한다. 당시에도 모두가 광주를 최하위로 지목했지만 우리는 역대 시민구단 중 창단년도 최다승(9승)을 기록했다"며 "광주는 끈끈한 조직력의 역사를 가진 팀인 만큼 올 시즌 역시 위기를 극복하고 잔류 이상의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수학선생님이 PGA시니어투어서 61타

제이 주레식, 본선행 티켓

20년 넘게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선생님이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예선에서 61타를 치고 본 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16일 미국의 수학 교사 제이 주레식(51)의 사연을 소개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중학교에서 21년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친 주레식은 14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스탠퍼드 인터내셔널(총상금 180만달러) 예선에서 10언더파 61타를 쳤다.

제이 주레식

주레식이 1위로 본선행 티켓을 따낸 가운데 PGA 정규 투어 우승 경력이 있는 마크 헨스비(50·호주)가 3타 차 2위, 유러피언투어 8승의 통차이 짜이디(52·태국)가 5타 차 공동 4위로 본선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26일 가수 송가인이 뜬다
보해양조의 날 시구

KIA 타이거즈가 호남 지역 대표 주조업체인 '보해양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기원' 행사를 연다.

KIA는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랜더스와의 경기에서 '보해양조날' 브랜드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와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해양조는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자영업자와 의료진 등 광주전남 지역민을 초청해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또한 보해 '잎새주' 모델인 송가인씨가 승리기원 시구자로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올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진화 기자